

CEO 동경

2012년 한국철도협회 정기총회



김광재 회장(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 24일 2012년 한국철도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2011년도 사업실적 및 2012년도 사업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였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는 철도가 더욱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국민모두가 저렴하게 이용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철도가 되도록 공단과 철도협회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

-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 교복, 학용품 등 연 8200만원 지원 -

공단은 지난 22일 대전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철도 주변 소외계층 청소년 100명에게 연 8200만원을 지원하는 2012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특히 올해 대학 신입생 3명에게 100만원씩 입학금 일부를 지원하고, 7명에게 장학증서 등 상급학교 진학생들의 신학기 준비도 지원하였다.

공단은 이날 장학금 지급 외에도 어린이재단이 전개하고 있는 해외 소외아동 자전거 보내기 캠페인에도 동참하여 자전거 5대를 기증하였다.

공단은 지난 2010년 본사 및 5개 지역본부에 속한 철도주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KR소년단을 구성, 장학금 지급, 교복 및 학용품 지원, 명절 나눔활동,

철도문화체험 행사 등을 전개하는 'KR소년단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KR소년단 김윤근(19세, 충남대 진학 예정)군은 "대학에 합격해 기쁨이 컸지만 입학금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철도공단에서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 진학까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광재 이사장은 "KR소년단에서 처음 대학 입학생을 배출하게 되어 기쁘고, 학생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며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이며 희망인 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본부 '숨은재산 찾기' 성과,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 이 대통령, 청와대 오찬에서 격려 -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성관)는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 오찬 행사에 초청받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전국에서 선발된 모범 공직자와 현장공무원과 함께 격려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감사원이 선발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장 90명과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한 우수 현장공무원 150명 등 240명이 참석하였으며, 본부는 감사원의 「민자역사 등 철도자산개발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숨은재산 찾기로 국가재산 수익증대 기여"가 선정돼 이인택 시설운영처장이 참석하였다.

본부는 2009. 1. 29 철도시설재산 중 관리대장 누락재산, 멸실 및 소재불명 재산, 중복재산 등의 국유재산을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개인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 보전조치하는 "숨은재산찾기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재산목록조사와 서류조사, 공부대조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토지 67필지(면적 21,245㎡), 건물 2개동(면적 12,735㎡)을 찾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냄으로써 영남본부, 강원본부에서 숨은재산 찾기 운동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모범사례가 된 바 있다.

오찬 행사에서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구석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외부의 이목에 관계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공직자들이 있기에 나날이 국가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치

하하였고, 국민과 더불어 공생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직접 일선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편에서 더욱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감사원은 매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국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직원 및 모범기관·부서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모범사례집을 만들어 전파해 왔으며, 감사원이 선발한 모범공직자를 처음으로 대통령이 초청하여 격려하였다.

(수도권본부 김원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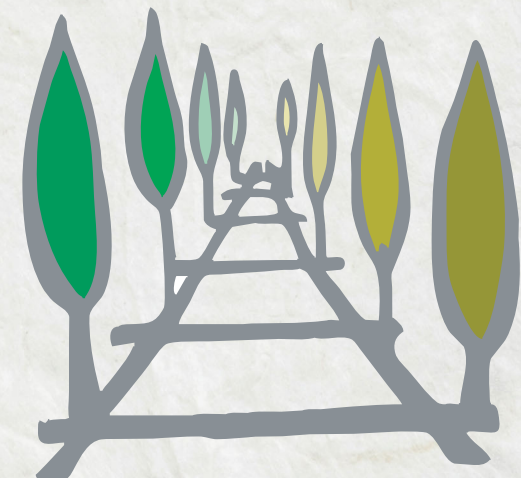
철도건설 용지비 6,694억원 집행

- 용지매수에 공정관리기법 도입으로 사업지연 방지 -

공단은 금년에 발주하는 원주~강릉 등 6개 사업을 위한 용지 총 970천㎡를 435억원, 기존에 발주된 수도권고속철도 등 31개 사업을 위한 용지 총 5,523천㎡를 6,259억원에 매수하는 등 '12년도 철도 건설공사에 필요한 용지매수를 위하여 6,694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며, 그중 4,358억원(65.1%)을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요구사항, 토지소유자의 민원 등으로 계획된 철도건설 일정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건설사업관리에 적용하던 공정관리기법을 용지매수에도 도입하여 적기 용지매수로 철도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집행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우선 순위와 건설사업 공정에 관계없이 비효율적으로 용지를 매수하던 관행을 탈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무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보상일정 안내 문자서비스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보상업무 투명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년 용지매수 집행계획

구분	12년예산(억원)	면적(천㎡)	대상사업
계	6,694	5,523	37개 사업
12년 신규사업	435	970	원주-강릉 등 6개 사업
기존 발주사업	6,259	4,553	수도권고속철도 등 31개 사업

철도시설물 개량사업 2,300억원 투입

- KTX 선로전환기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등 전년대비 73% 증액 -

공단은 KTX 등 열차 안전운행 강화, 노후시설 개량 및 편익시설 확충 등을 위해 금년도 철도시설물 개량사업에 지난해보다 73% 증가된 총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고속철도 개량사업 예산 400억원을 신규 확보하여,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의 동작상태를 원격 감시하고 장애 발생 시 원격으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비한 교량의 내진성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승강설비(엘리베이터 9대, 에스컬레이터 18대)와 스크린도어(8개역)를 설치하고, 소방안

전설비 및 재해예방시설 개량에 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노후된 시설물도 순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단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시설의 안전 성능 강화와 노후시설의 개량 등을 지속 추진하여 철도의 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시설 개량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비고
합계	1,333	2,299	72.5% 증가
고속철도 개량사업	-	400	신규
일반철도 개량사업	1,333	1,899	



익산~대야, 군장산단 철도건설사업 보상 개시

- 호남본부, 대야역 인근에 보상사무소 설치 -

호남본부(본부장 임영록)는 금년에 신규 건설하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및 군장산단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빠른 착공과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용지매수 협의사무소를 군산시 대야역 인근에 설치하고, 3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본부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오는 5월 15일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내에 사무소를 방문하여 용지도면, 편입토지조서 등을 열람할 수 있고, 공단에서는 열람기간 동안 공휴일에도 열람인의 편의를 위해 담당직원이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5,143억원을 투입하여 익산역에서 대야역까지 약

14.3km를 복선으로 건설하며, 군장산단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5,430억원을 투입하여 군산역에서 대야역까지 약 29.9km를 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개의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각각 약 800필지(59만㎡)와 1800필지(108만㎡)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다.

* 용지매수 협의사무소 :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78, 3층 (☎ 063-451-0955, 0957)

